



영혼 구원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교회

-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유경주 집사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설교 그리스도의 사랑 (고후 5: 14-17) 이진수 목사
결단찬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다함께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 * 표는 일어서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서지 않고 앉으셔도 됩니다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하나님의 꿈” (이사야 43:18-2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꿈은 희망이요 생명입니다. 꿈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게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세 가지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우리가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18 절에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사단은 계속 과거의 쓴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용기를 꺾고, 자신감을 꺾고, 원망과 좌절, 근심과 걱정, 우울증에 빠뜨립니다. 과거의 쓴 기억에 얽매어 있으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잘못과 실패,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쓴 기억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 꿈을 가지기 위해서는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꿈은 과거의 쓴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것만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 절에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생수를 내어 마시게 하십니다. 막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십니다.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에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에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꿈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21 절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살 때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채워집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만족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초점이 되어 하나님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찬송하는 삶이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성도 총회** - 오늘 예배 후에 2025년 인선, 예산 위원 인준을 위한 총회가 있습니다. 김영란, 심영민, 유영민, 이화선, 조정욱 / 감사 : 유경주, 이강선
3. **친교부** - 매월 마지막 주일 월례회에 점심 섬겨주실 봉사자를 원합니다.
4. **고구마 판매** - 선교 후원을 위한 고구마 준비되었습니다.
5. **한국문화 교실** - 사회협력부에서 지역회 공헌 프로젝트 일환으로 가칭 '한국문화교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함께할 프로젝트 팀을 모집합니다.
6. **추수감사절 예배** - 11월 24일에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초대해 주십시오.
7. **교회후원 감사** - 지난 교회 파킹장 청소를 위해 손 다니엘 집사님 가정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10/20	10/27	11/03	11/10
대표기도	유경주	조정욱	이강선	조현숙
헌화성도	김인수	이진수	서영희,성미숙	정병철
봉사당번	소망구역	월례회	사랑구역	사랑구역

행사 및 모임

10 월	제 직 회	10 월 6 일 (주일)
11 월	추수감사 예배	11 월 24 일 (주일)

예배출석자 및 헌금

예배 출석자	주일예배	
	주일학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예배	
지난주 헌금통계	\$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조현숙	510-396-6952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생명의 삶	13 주
확신의 삶	7 주
새로운 삶	13 주
경건의 삶	13 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13 주
말씀의 삶	13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옳음을 넘어 덕이 되는 신앙으로

철이 들었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때 철이 들었다고 합니다. 철이 들면 부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들고, 철이 든 사람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삽니다. 철이 들었다는 말과 성경 속에서 ‘덕’이라는 말과 일치상통 한다고 느낍니다.

우리들의 본성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내가 맞는 말을 했냐 안했느냐를 따집니다.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 있냐 없냐를 따집니다. 전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분과 논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사람이 저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았더니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상처받을 만한 일도 아닌데 상대방이 자각지심으로 상처를 받았다, 기분 나쁘다고 한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는 참 교만하게도 요한일서 3:21 절 말씀을 인용해서 대들었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저는 양심에, 하늘을 우러러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상처 받은 것 그 사람 책임이지 제 잘못 아닙니다” 그랬더니 멘토 되시는 분은 고린도전서 10:23 절 말씀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때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말과, 내 행동과,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닌 가한 일이라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 내가 하는 일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믿음에 걸림이 되고, 교회와 성도간에 하나됨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며 덕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우상에 드러진 고기를 먹는 것이 가한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된 자, 신앙이 더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옳고 그름을 넘어 덕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양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5 절에도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십시오" 빌립보서 4:8 절에도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을 넘어서 덕이 되는 성숙의 신앙의 사람으로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